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 성과 기반 책임경영 강화

공공기관 통합지침 첫 제정
인사·조직 효율화 본격 추진
성과연동제·재정진단 도입
도민 체감형 혁신 모델 구축

경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며 흔들림 없는 신속한 혁신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도청 확대간부회의와 병행해 열렸으며,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혁신 전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수립하고, 도지사주재 전략회의와 4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율책임 경영 ▲인사조직예산 효율경영 ▲공공ESG경영 등 3대 분야 8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추진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광역 최초 '공공기관 혁신 통합지침' 제정 ▲통폐합 기관 조직·기능·인력 정비 ▲인사운영 개선 및 복리후생 강화 ▲재정구조 및 예산운영 체계 개선 ▲도청-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활성화 ▲성과 중심 책임경영 확대 ▲저출생 극복 및 가족친화 경영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신속한 혁신 추진을 주문했다.

가시적 결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도는 각 기관 운영의 기준을 마련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통합지침'을 제정해, 경영평가와 성과급 연계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도모했다. 통폐합 이후 이원화된 인사·보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경북문화재단과 경북행복재단 등은 조직 효율화를 위한 회계·정책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인사 부문에서는 승진 연수 단축, 표준 직급체계 정비, 장기근속자 보수 강화 등 복리후생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공공기관 이직률 문제 해결과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도는 공공기관 인사 교류를

처음으로 도입해 실무자 간 역량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고졸 인재 채용제도 확대, 도청-공공기관 공동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행정 일체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재정분야에서는 자체 수입 목표제, 출연금 조정제, 불필요 기금 정리 등을 통해 자율책임형 재정 구조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재정진단 모델을 마련해 체계적 운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연동제도 도입된다. 기관장 연임평가와 기본연봉 차등, 우수기관 임직원 성과급 상향,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성과 보상이 이뤄진다.

공공ESG 영역에서는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해 13개 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했고, 육아·돌봄 업무 대체자에 대한 수당 상향 등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기능 및 재정진단 평가를 시행하고, 중복 기능 조정과 혁신 이행 여부를 다음 연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와 공공기관은 한 몸이 되어 도민 중심의 행정을 이끌고, 지역과 함께하는 경영과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 공공기관의 표준모델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안동시

'K-Food' 특별전 개최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한식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교류 기획특별전 '수운잡방에서 K-Food까지'가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끼마을 근민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개관식은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북촌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성황리에 열린 특별전을 안동으로 옮겨 더 풍성한 콘텐츠로 재구성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고운 모래와 해송 숲, 탁 트인 청정 바다를 자랑하며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전남 완도군의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이 오는 12일 개장하며 다음달 17일까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신지명사십리 외 보길종리 등 10개소는 25일 개장한다. 군은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모래조각 전시, 비치발리볼 대회, 플라이보드 쇼, 버스킹 공연 등 '해양자유와 바캉스'를 접목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7월 12일, 신지명사십리 개장일에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부제로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개최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

노후주택 5000 가구 화재 점검

전남도는 최근 부산에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복지기동대와 전남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지역 내 노후주택 긴급 화재예방 점검과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월6일까지 2개월간 5000가구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노후 콘센트 교체, 노후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소방시설 점검, 화재예방 교육 등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시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창원특례시가 8일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도비 확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규현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등 창원지역 16명의 도의원이 참석해 2025년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핵심 전략과 주요 건의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진행했다.

시는 국정 과제화 공조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고속화철도 건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진해신항 트라이포트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12건을 제시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주시, 폭염·태풍 대응체계 가동

소방 순찰·예찰 활동 병행 추진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강조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기조에 따른 것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7일 기준 경주지역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0~80대 고령층이 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발생 장소는 논밭·실외 작업장·길가 등 야외에 집중됐다.

경주시는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넘



경주시 보건소 관계자가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폭염 대비 건강관리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나들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가운데, 민강계층별 맞춤형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폭염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작업 자제를 유도하고, 소방사이렌을 활용한 순찰 및 예찰 활동도 병행 중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맞춤형 공무원 복지제도 추진

일·가정 양립 제도와 속도

포항시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사회 문화 혁신과 함께 맞춤형 복무 제도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 계획'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를 통해 개인의 삶과 가족, 일터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휴가제도 신설이다. '보육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5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됐다. 또 '교육지도시간'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학습지도 시간도 부여된다. 이는 기존 육아시간이 초·중·고년까지만 적용되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MZ세대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로도 포함됐다. '새내기 도약 휴가'는 재직 1년 이상 6년 미만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3일간의 특별휴가로,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 민관 나눔활동 공로자 포상

기업·단체 등 총 56명 표창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희망2025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상 유공자와 박형준 시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이강국 시 부교육감, 김진홍 동구청장, 오은택 남구청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언론사 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을 비롯해 2024년 나눔문화 화

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시장 표창 18개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 38개 등 총 56개의 표창이 수여됐다.

주요 유공자로는 코로나19 시기부터 백미와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기탁해온 개미집 본점, 재해재난 기부와 취약계층 독서기 물품 지원을 실시한 신앙촌소비조합, 2018년 설립 후 지역 상생과 인재 육성, 환경 보호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선정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양산 도시철도 국비 120억 추가 확보

경남도, 올해 총 656억 편성

경남도가 2025년 정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체제 하에서 경남도와 양산시가 노력해 일관된 이번 주경으로 올해 건축공사 및 SE공사 완료가 가능해져, 내년도 하반기 양산도시철도 전면 개통에 더 탄력이 붙었다.

2025년 국비는 추경 120억원 증액을 포함해 656억원이 확보됐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1호선 노포역에서부터 양산 사송택지지구를 거쳐 북정동을 잇는 길이 11.43km, 정거장 7개, 차량기지 1개소, 총사업비 7963억원 건설 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과도 연결된다.

2011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2015~2018년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2018년 착공해 현재 전체 공정률은 89%이며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7개월간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